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홍용 편집: 양재웅

결실을 준비하는 10월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구약의 그림과 예수

예수님과 관련해

구약이 어떻게 사용되

었는지 살펴보자. 예수

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은 그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준다(마 3:13~17; 왕상 18:38~39,41).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마태는 예수께서 완성시키신 그 일을 구약에서 어떻게 말해 주었는가를 보여준다(단 2:44).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그 왕권이다(사 9:1~2,7).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역시 구약이다. 모든 대답이 성경으로부터 왔다(눅 24:23~27). 구약 안에서 여러 모양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았고 예언적인 그림과 예배의 상징 등등, 모두를 보았다. 모든 것들이 실로 짜여진 것처럼 엮여 있는 가운데 각종 각양의 형태와 소망이 조각조각으로 나타나 있었다(눅 24:44~47).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도 보았다. 구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사 53:2~3,5,12).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구약의 이야기는 약속과 관련하여 외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내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살펴보자. 야기 예수나 여기저기 도망가야 하는 예수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한 청년이 있다. 세례 요한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 중에서 별로 튀어 보이는 것도 없는, 나뭇속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도 없는 청년이다(마 2:23; 눅 2:51~52). 그러나 이 청년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점을 어깨에 지고 있다(요 1:29). 불안정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다. 그는 구약에서 말해 주는 몇 가지의 그림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고 있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마 10:32~33). 그는 신령한 왕. 다윗 왕의 권위를 갖고 있다(마 12:17~21). 여기에는 순종이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 부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삼하 7:14; 렘 22:3~5; 요 4:34).

순종은 또한 다윗 왕가의 아들됨과 기대하지 못했던 종의 모습을 묶어 주는 고리다. 유대 전통에서 나왔다가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왔다(마 3:17). 예수님 자신은 다윗 왕가의 메시아적 역할을 고난과 순종, 하나님의 종의 면에서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순종은 이삭과 연결되는 고리도 된다. 사방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써 희생제물이 될 것을 기꺼이 택한 이삭이었기 때문이다. 절대성, 종의 도, 희생, 이 세 가지가 예수님 한 분 안에 응축되어 있다. 이 셋은 구약 안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깊은 의미를 주었던 내용으로서 이제 한 사람 예수 안에 다 합쳐져 있다. 예수님의 개성 또는 주체성과 그의 사명, 또 삶의 태도 모두가 구약성경이 제공하여 주는 여러 가지 얽히고설린 삶의 패턴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인정하려고 들지 않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복음서 안에서 보게 된다. 자기 자신과 관계된 구약의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마 11:4~6; 사 35:4~8).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창조적으로 하셨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의 예언을 그 완성과 일대일로 맞추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예수가 아주 별다른 존재요, 외계에서 생겨난 사람이 아닌 것을 지적해 준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볼 때에 독특하다. 그렇지만 구약의 역사를 아는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는 이미 구약이 제공해 준 패턴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또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패턴이나 모델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어느 순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유별난 여름으로 인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가을의 햇볕은 한 해의 결실을 기대하게 합니다(눅 4:29).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영적 결실을 위해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야 합니다(마 16:24). 성령의 열매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히 12:2).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골 1:6)를 맺게 하십니다.

특히 10월에는 교회의 중요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피떡자들의 노회 및 당회고사를 시작으로 장로 피떡자들의 주례발표와 임직예배 그리고 2011년의 마지막 청지기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주하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고 매일 새벽기도회는 물론 수요예배, 그리고 청지기훈련과 추수감사절 찬양을 준비하며 온 세대를 아우르는 금요찬양집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골 3:16).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THE THREE CROSSES ON CALVARY HILL

*⁽³³⁾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the criminals--one on his right, the other on his left.*

*⁽³⁴⁾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

⁽⁴²⁾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⁴³⁾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uke 23:33~43)*

Three crosses stood atop Calvary Hill on the day Jesus died. Our Lord's crucified body was placed in the middle of two crucified criminals. All three suffered and died on their cross. One died for sin, one died to sin, and one died in sin. One was completely innocent and two were completely guilty. One paid our debt to sin and two paid their debt to society. One represented the holiness of our Father and two represented the sinfulness of our world. All three crosses have significant meanings which give us great incentives to live for Christ. Let's look at the three crosses on Calvary!

When you look to Calvary you see two men in the same condemnation,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the criminals—one on His right, the other on His left" (Lk. 23:33). Two criminals got caught in their sin. The first criminal mocked Jesus, "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re hurled insults at him!" (Lk. 23:39). The second criminal had a remarkable observation, "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Lk. 23:40~41). The second criminal stated a great spiritual truth and recognized his own guilt, which is difficult to confess. The second criminal recognized his sin. The most difficult truth on earth is to accept that all people are equally guilty before God. I often hear people talk about how terrible society is, but not about how terrible they are. We divide humanity by race, education, money, and success, but God divides us by grace alone.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a mayor and a meter maid; a doctor and a patient; a warden and a prisoner, or a movie star and a street worker. It's hard to realize that all are lost. Romans 3:22~24 says,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When you look to Calvary you see two men ask Jesus for

salvation. The first criminal spewed out, "Aren'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Lk. 23:39). The second criminal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Lk. 23:42). Both criminals asked Jesus to save them. The first criminal asked to be saved from his situation. Many people pray like this when in trouble, but this kind of prayer does not save. The second criminal asked to be saved from his sin. He had genuine conviction. Conviction always precedes conversion! We must remember that "all" are guilty before God. The second criminal faced the real issue of life. He admitted his sin and accepted Christ as his Lord. He anticipate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He anticipated his own resurrection too. He looked at Jesus in his humiliation and saw a King. His life was spent doing bad things, but in his last moments of dying for sin he recognized his sin. This is the grace of God at work! This is the power of Christ's cross!

When you look to Calvary you see Jesus whose purpose is salvation. Jesus told the second criminal;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Physically weak from dying, soon to take His last breath, these words from Jesus' mouth have the power and authority of heaven! Do you know this power? All I can say is "Amen"! Jesus had time on the cross to win one more soul. Paul experienced paradise; he heard inexpressible things, things that man is not permitted to tell (2 Cor. 12:4). Jesus was able to tell the second criminal that he would be with him in paradise. The second criminal was saved. The purpose of Jesus' death was for our salvation. His cross was the greatest demonstration of God's holiness and love.

My dear friends, please think about these questions. Can one be saved in his dying hour? Can one be saved after a life of wickedness? Can one be saved without baptism or communion? Can one be sure of heaven after death?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yes to all who look at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accept Him. There's only two ways to go in this life, which way will you take? 

갈보리 언덕 위의 세 십자가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³⁴⁾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 ⁽⁴²⁾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⁴³⁾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3~43)



김성관 목사

예 수님이 죽으신 날 십자가 세 개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범죄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지만, 한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고, 한 사람은 죄 속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무 죄였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범한 죄 값을 치렀지만, 두 사람은 사회에서 범한 죄 값을 치렀습니 다.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신성함을 대표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의 죄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 세 십자가 모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제 갈보리의 세 십자가를 살펴봅시다!

죄를 범한 두 행악자

갈보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동일한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눅 23:33). 두 행악자는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편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눅 23:39). 이에 반해 다른 편의 행악자는 놀라운 식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눅 23:40~41). 그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말하였고, 고백하기 어려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진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사회가 너무나 무섭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시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끔찍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분, 교육, 돈, 성공 등으로 인류를 분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나누십니다. 시장과 주주 단속원, 의사와 환자, 교도소장과 죄수 또는 스타 배우와 거리 노동자는 서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22~24은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행악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하라고 외친다

갈보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편의 행악자가 토로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 다른 편의 행악자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라고 말했습니다. 두 행악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 편의 행악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편의 행악자는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진실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이 있어야 회심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다른 편의 행악자는 인생의 참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부활도 기대하였습니다. 그는 수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 왕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나쁜 일을 하는 데만 허비했던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갈보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한 편의 행악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육신으로는 죽어가며 마지막 숨을 내쉬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천국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능력을 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오직 “아멘”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도 한 영혼을 더 구하셨습니다. 바울은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곧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고후 12:4). 예수님은 다른 한 편의 행악자에게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을 나타낸 최고의 증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죽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악한 삶을 산 후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세례나 성만찬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죽어 천국에 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이 질문들의 답은 “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단지 두 개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13-35)

심령이 상한 그들을 찾아가 동행하셨다.

● 그리스도께서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눅 24:17)라고 물으셨다. 이때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 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며,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세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심령이 상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눅 24:16). 항상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 매여 있었기에, 3년 가까이 떠났던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두 제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지 않았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면 죽을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일 뿐이었다(눅 24:19,21).

메시아의 죽음 92

칼 가진 자를 향하신 반응
(마태복음)

잘못했다는 사실을 밝히신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 5:39)라고 가르치셨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대항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신 이유는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구하기만 하면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다(마 26:53). 최후의 심판주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마 13:41, 16:27).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마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그 능력을 의식하며 시험하였던 것이다(마 4:6).

따라서 칼 가진 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당시 일어난 모든 상황이 세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마태는 부각하여 기술하였다. 당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양심과 윤리, 열정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속의 길을 가고 계셨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좌익의 손에 팔리느니라”(마 26:45). 따라서 베드로의 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칼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거나,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베드로의 행위는 철저히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셨다. 가장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바로 그 부활의 아침에 큰 슬픔에 빠져 고향으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 하더라”(눅 24:13-14).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가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히신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 24:25).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등등의 모든 것을 비교적 가까이서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다. 두 제자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었다. 이 두 제자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오직 믿음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눅 24:27). 성경의 초점은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축복에 있지 않다. 이것을 추구할 때 결코 믿음과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된다. 성경의 초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심령이 상한 두 제자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 신앙에 불을 붙이신다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되새기며, 믿음에 불이 붙었다.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속소(눅 24:29)에 들어 간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눅 24:30). 그리고 그들의 눈은 곧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눅 24:31). 이때 두 제자는 서로 고백했다.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 그동안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했고,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세상적인 계산을 했었다. 이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에 불이 붙었다. 이후에 두 제자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눅 24:33-34).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앞에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과 같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이신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자. 그곳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아멘.

땅에 속해 있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라는 달랐다. “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나라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이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마 26:56).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교만과 자존심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 칼을 뽑아 예수님이 가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막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언대로 한 걸음씩 나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시고 나타내시니”(마 16:21).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다(마 26:46, 27:46; 시 22:1-2; 단 2:28-29).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한담시고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원망과 불평 등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있을 것이다. 분노만도 못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야 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같이 지켜주신 주님

단기선교 사역은 끊임없는 기도와 열적 무장 없이는 해낼 수 없는 낮은 환경, 문화, 기후, 언어 차이의 힘은 여정이었지만 선교사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귀하게 주신 사역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떠난 선교지는 공안으로 인해 정도할 수 없었다는 경험담을 들었던 터라 공안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막상 현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보니 놀랍게도 찾아가는 곳마다 정이 많아 친절하게 대접을 해 주며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어눌한 언어지만 함께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기도를 다하면서 8월 9일 사역 동안 공안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떨치며 온전히 복음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자 같이 지켜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경(집사, 5교구)

정말 부끄럽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팀원들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시고 깊은 시대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와 찬송의 힘으로 무사히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귀국 길에 오르려 공항으로 갔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이륙 후유나 간다는 소식이었다. 팀장님께서 차분히 선교사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은 밤늦은 시간에 차량을 준비하여 우리를 무사히 선교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귀국 길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곳에서 이들을 머물며 확실히 알게 되었다. 외롭게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사로 오신 귀사님을 보며,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을 보며 모든 팀원들은 말없이 회개하며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선교기도회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는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외롭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 몸 바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들을 더 머물게 하셨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단기선교를 무슨 벼슬인 양 자랑하며 알 드러내기를 은근히 바라지 않았던가! 정말 부끄럽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것도 아니며, 단지 쓰임 받는 종이건만 조그만 섬김과 헌신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애쓰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조영란(집사, 15교구)

내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

이번 단기선교는 나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선교였다. 암 수술 후 3년 만에 병마와 싸워 승리하게 하고 모든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지금, 가슴으로부터 밀려오는 감동과 이 은혜는 주님의 선물임을 확신한다. 사실 완치 관정을 받지 않은 이 즈음에 선교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가족과 주위의 염려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선교 훈련과 언어, 현지의 음식과 환경, 위생 상태 등 참으로 나를 부린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말기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나는 환자가 아니라는 것, 이미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며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심과 같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도 살리셨음'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다. 내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자 됨을 전하는 것이 은혜의 보답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큰 기쁨과 함께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나에게 주셨고 만만치 않은 비형 일정과 현지에서의 적응도 수월하게 하셨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질병을 고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나의 형편과 사정, 건강,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알고 있다. 참된 진리의 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나를 부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알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때에 누가 가서 추수할 곡식을 거둘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할 대임을 확실히 믿는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근우(안수집사, 20교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UKRAINE)



위치 : 유럽 동부와 러시아 서부 사이
목예 연안
수도 : 키예프 (Kiev)
언어 : 우크라이나어
기후 : 대륙성기후,
남부 크림반도는 아열대기후
종교 : 우크라이나 정교(46%),
카톨릭(6%), 기타(38%),
개신교, 유대교 등

1. 선교 정보

-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현재의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되었다.
-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으며, 손금으로 초대받거나 손금을 영접할 때 문턱 너머에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은 실례이다.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선교 활동에 대해 제한을 가지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국법에 위반되는 노상 대중 집회나 요란한 전도 활동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
-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일부 지역(체르노빌, 쿼포르트 북부 지역)은 아직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2. 선교 진행 상황

- 올해는 1개 팀이 단기선교를 마쳤고 현재 1개 팀이 선교를 앞두고 훈련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통일교, 여모와의 증인, 물론교 등 다양한 이단 종교가 적극 개척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역이 필요한 국가이다.



3. 기도 제책

-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났던 우크라이나의 영문들이 참 생명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 우리 교회에서 현지 선교사로 파송하여 사역 중인 송요한 선교사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여 진리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로 변하게 하소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27일(화) ~ 10월 5일(수)	23교구 3팀	한홍연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19일(화) ~ 9월 27일(화)	24교구 4팀	이민준
9월 20일(화) ~ 9월 28일(수)	4교구 3팀	임태수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부부는 3대째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동생의 권유로 천현교회 유아부에서 아이의 신앙교육을 시작했다. 찬양대에도 들어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뻐졌다. 3년이 넘게 두 교회를 오고가며 인도 들었고 온 가족이 한 회를 섬기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교회를 옮기자고 했더니 “나는 천현교회가 좋아요. 말씀도 찬양도 다른 교회와는 너무 달라요”라고 했다. 이 한 마디에 온 가족이 등록하고 주일3부예배 위임목사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와는 정말 다른 말씀이었다.

어릴 적부터 갈등해 왔던 신앙의 문제를 너무나 속 시원하게 해결 받았다. 그때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나의 옛 모습이 하루 아침에 바뀔 리는 만무했다. 목사님의 말씀은 그저 나와는 무관한 원로들의 질책의 말씀으로만 여기며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깨닫지 못했다. 위임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때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만 여겼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도 아니요 바라세인도 아니라 여겼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늘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다. 물질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항상 바르고 착하게 모든 이에게 덕을 끼치며 살았다고 자부하던 나의 자존심을 통깨부러졌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고 착한 아들에게까지 학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다.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도록 원망, 좌절, 낙담, 절망의 구렁텅이로 누군다가 나를 밀어 넣고 있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정신이 반짝 들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금식하며 었드렸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용서하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의 모습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

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 오셨기 때문이다. 용서해 주신 시험을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게 된 나는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성경의 인물들이 왜 그렇게 담담하고 담대했는지 주님은 알려 주셨다.

“주님,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지 않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갑작의 이익을 남겨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은 것처럼 저도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고 싶어요.”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다. 부족한 자에게 교사, 구역장 외 외에 피택 권사로, 교구 찬양지휘자로, 단기선교사로 부르셔서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세상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수요1부예배, 주일찬양예배, 금요찬양집회, 월요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위임목사님의 하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맘껏 마실 수 있게 하심이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가장 큰 감사로 여긴다.

주님은 십자가 복음을 맞은 나에게 전도의 열정을 부여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을 열게 하셔서 전하도록 하셨다. 기도의 첫 열매 이육순 할머니도 만나는 이마다 “여섯째 천현교회로 진짜 예수님 만나라 가자”며 전도하고 다니신다. 남편과 아들 한민이를 주님의 일 잘 감당하도록 돕는 자로 세위 주심을 감사드리며 매 순간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히 12:2)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벧전 1:8).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신성애(잠사, 21교구)

나는 고슴도치

날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는 듯한 기쁨에 산다. 날마다 앞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에 빠져 하루하루를 더럽고 추한 나를 경험하건만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잘못들을 이루 없애는 뜻이 비라만 보시고 빙긋이 웃어주시고 나를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버지 품으로 안아주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맞고지 못했던 환희를 느낀다. 오늘은 어떤 은혜로 또 내일은, 그 다음날은 어떤 은혜로 날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하고 기대가 된다.

이번에 경험한 은혜는 나 자신이 고슴도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고슴도치의 습성은 모르나, 외관상 온 몸이 가시가 돋쳐 있음을 알고 있다. 내 생각과 뜻, 나의 경험, 사회적 위치와 통념과 체면을 앞세워 세상 일에 대처할 일고슴도치인 나는 여지없이 그 가시를 세위 남을 찌르고 나 자신도 재를 할 수 가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 미세한 음성에 따라 행하는 나의 가시는 몸속으로 들어가 나도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지 않게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안에 있는 가시가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로 간구한다.

“아버지 나를 죽게 하여 주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시가 남을 또 찌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도 광경을 주시고 성령으로 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소서. 이생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듯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정구현(인접사, 18교구)

내 생명을 건지셨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유학을 준비해 왔다. 작년 말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유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할 힘을 주셨고, 걱정 없이 오직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올해 초, 기고 싶었던 학회에서 인터뷰 연락이 왔는데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 주님께서 모두 하신데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계속 물으려 하셨습니다. 인터뷰 준비기와 회신 메일이 너무나 좋아서, 그 편지를 본 지도 교수님도 미리 축하를 할 정도였으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흔들었나. 나는 그 십자가를 머리로부터 알고 가슴 깊이 못 박을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 주님이 없이 다른 것들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는 마음을 주셨다(벧 39:18).

매일 아침 이 전쟁에서 승리할 테니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마음을 차차 받아들었다. 나는 뱀인지 딱인지 구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었다. 모든 거센 전쟁이었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미 승리하셨다. 나를 낳으시고 시험하신 나의 마음이 어떤지 중심을 보시는 주님, 교만편지조차 알지 못하던 내 생명을 건지셨구나! 상상으로 못할 만큼 글썽이 흥성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넘어서고 쓰러지지만 십자가는 성경의 역사야 아닌 죄 사람의 승리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심지훈(청년1부)

2011년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

지난 9월 24일, 중장예배를 드림으로

6개월간의 피택자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각과 회회 및

당회고시와 임직예배를 앞두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것이 완전히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자.

고난의 길

참으로 어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어느새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쫓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때 순간 내려지고 있는 데도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젖어,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온갖 가식과 교만으로 변론과 언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천국의 문을 막고 서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 다. 주님, 이같은 죄인을 피택 장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니 무한 감사합니다. "내 피 값으로 너를 살았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자"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눈물 없는 길 수 없는 길입니다. 악한 사탄이 유혹하고 방해하는 길입니다. 육신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바쳐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창대(장로 피택자)

종의 자리, 그리스도의 향기

총현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1988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본들의 중심에 안수집사님들이 계셨다. 총현협 은곳 곳은 일을 싫은 기복 없이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여러 안수집사님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새롭다. 그분들에게서 나는 항상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왔었다. 그런데 금년 3월경에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면접이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적잖이 당황하게 되었다. 진정 주님의 부르심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말씀 가운데 아무 자책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자기부인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셨다. 그 후 토요일마다 있는 교육 과정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나의 부름을 깨달으며 매주일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인제나 함심하기 그지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성장하여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한다.

이동준(안수집사 피택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십자가

6개월간의 피택 권사 훈련을 마치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의 강의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주님의 물된 우리 총현교회의 소중함과 봉사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칼라다아서 2:20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살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자기 부인이라 말하며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보게 하시며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기도보다 행동이, 나의 합리적인 사고가, 걱정이 앞섰던 믿을 없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려고만 했던 믿을 없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을 때, 힘들어 애쓰던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다니는 나조차 없을 때 낙담하여 주저앉았고 불행하고 주위의 사람을 원망하고 닦했던 미련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늘려온 십자가의 비밀인 나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시며, 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비밀을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할수록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십자가만 크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소서. 제 삶의 행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김영석(권사 피택자)

십자가의 길

주(主)기도문 & 돈(錢)기도문

어떤 사람이 기독교가 천만본주의와 순잡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돈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만들었다.

"종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게 하시고, 소독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중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는 고소할지언정 나의 빛은 있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행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돈님께 있사옵나이다."

이런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다. 사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

들지만, 사회 재제를 어둠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문화와 사상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예수님을 불신

하게 하고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유

1:18-19).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

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셔서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826	이광석		교역자	
2827	김 진		1	
2828	이성찬	초등1부	1	
2829	이영환	유치부	1	
2830	이지혜	유아부	1	
2831	전서현	영아부	10	
2832	권예은	영아부	4	
2833	홍은선	양육반	7	홍순애
2834	이강종	양육반	11	오희자
2835	최기성	양육반	3	김지춘
2836	송이진	초등부	23	김진진
2837	정창남	양육반	23	김미연
2838	권재욱	양육반	2	김영희
2839	김우진	양육반	14	김근아
2840	윤연정	초등부	8	곽효운
2841	오 섯	외선부	25	황정미
2842	최유송	양육반	13	
2843	박준영	양육반	7	곽경숙
2844	유상민	초등부	13	문경숙
2845	이준영	양육반	17	이영순
2846	레탄민	외선부	25	백문일
2847	황송애		10	
2848	박송애	양육반	7	
2849	신희수		13	김종너

교회 소식

모임

1. 정기모임
일시: 5월(수) 오후 2시에 후 장소: 당회실

별세

- 최종환 타교집사(최씨는 집사의 부인 - 마영준 집사의 장인, 7교구 상이구역) 9월 23일 별세, 9월 26일 장례
- 박익준 성도(최 집사의 모친 - 이화자 권사의 사위, 12교구 호정구역) 9월 24일 별세, 9월 26일 장례
- 김영희 성도(김 집사의 모친, 22교구 연당구역, 12교구 김용대 성도의 모친, 손복희 집사의 사위) 9월 24일 별세, 9월 26일 장례

결혼

- 김영준 군(김씨는 성도 - 시화자 권사의 아들, 24교구)과 김정은 분(장씨 성씨) 9월 13일(월) 14:00, 영동성당舉行
- 신동훈 군(신씨는 장로 - 윤준권 권사의 아들, 타고교와 신대원 장로교회)과 김은진 집사의 딸, 11교구(수) 18:00, 시교동교회
- 윤원준 군(윤씨는 성도 - 최영일 권사의 아들, 3교구)과 전아연 집사(전씨는 장로 - 김은희 권사의 딸) 8월(수) 18:00, 삼성동 성당의 장로 1층 그랜드볼룸
- 홍성준 군(홍씨는 장로 - 박익준 권사의 아들)과 박민정 집사(박씨는 장로 - 노영진 권사의 아들, 2교구) 8월(수) 18:00, 서동교회
- 박익준 군(박씨는 장 - 성자와 권의 아들과 혼전 생활한 후)와 김은진 집사(김씨는 장로, 7교구) 8월(수) 17:00, 로레토로 성심교당(삼삼동)舉行
- 유희숙 군(유씨는 장로 - 김대호의 아들, 13교구)과 최지영 집사(최씨는 장로 - 윤영준 권사의 딸, 22교구) 8월(수) 17:00, 해리노 2F 아그네스룸

주선본

- 조준환 장로(김도성 집사) 복종본 후원회를 상임 A 395-402, 212구

권사회 오키나와 간송

일시: 29일(수) 오후 2시에 후, 매주일(500) - 수요일(800) 장소: 김포시(주) - 나사렛교회(모임)
권사회(1-4차)의 명성연 일시: 4월(수) 950 고해리교회 장소: 춘천(도원)

2011년 당회소식 및 면면

일시: 8월 10일 장소: 제1교구 307호 대상: 대면 인사집사 - 권사

총회 교회회전 전도

일시: 8월 12일(수) 구역별 명성연 후 15일(토) 1400 장소: 15일(토) 1400 1:3 5-7(토) 307호 2-4 6-8(토) 407호

명성연

부서 일시 장소 부서 일시 장소
17구 8월 10일 10:00 춘천기독교회 19구 8월 10일 10:00 제1교구 307호

총회전 전도일

부서	일시	장소	부서	일시	장소
19구	2월 10일 14:00	제1교구 307호	22구	9월 12일 12:30	제1교구 407호
12구	9월 12일 14:00	본당 제1교구 307호	6교구	19월 12일 14:00	제1교구 407호
7구	9월 12일 14:00	제1교구 307호	19구	19월 12일 14:00	제1교구 407호
19구	9월 12일 14:00	제1교구 307호	22구	19월 12일 14:00	제1교구 407호

2011년 제5차 학예 및 세례식

날짜	시간	학예	장소	세례, 개종, 입교	장소	유아세례	장소
10월 9일 (토)	15:00-15:50	교구 (김정호 목사)	39호	교구 (윤정호 목사)	39호	교구 (윤정호 목사)	39호
10월 16일 (수)	12:00-12:50	장로 (장영진 목사)	39호	교구 (박지현 목사)	39호	교구 (박지현 목사)	39호
10월 16일 (수)	12:00-12:50	장로 (장영진 목사)	39호	교구 (박지현 목사)	39호	교구 (박지현 목사)	39호
10월 23일 (수)	12:00-12:50	장로 (장영진 목사)	39호	교구 (박지현 목사)	39호	교구 (박지현 목사)	39호
10월 23일 (수)	12:00-12:50	장로 (장영진 목사)	39호	교구 (박지현 목사)	39호	교구 (박지현 목사)	39호

새벽 기도회 (10/3-10/9)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신상수	이광현/여영로	정민관/경재영	이현석/신태호	장지원/최상기	하옥성/윤인숙
설교 본문	마태복음 22:1-13	눅 22:1-13	눅 22:1-13	눅 22:1-13	눅 22:1-13	눅 22:1-13

예배 담당 (10/5-10/9)

날짜	예배	설교	기도	찬양
10/5	수요 I	목마는 구주(요 19:28)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수요 II	십자가 위에 서서(고전 1:18-25) 김민관 목사	이태원 집사	주 십자가를 지십시오(실로암 찬양대)
10/7	주요일 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10/9	주요일 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X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XL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X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V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V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V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VIII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IX	김성관 목사	박지현 집사	예수 마가(요 19:28) 김성관 목사
	주요일 LXXXXXXX	김성관 목사	박지	